



보기만해도 배부른 ‘사랑의 가래떡’ 23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강당에서 열린 ‘설맞이 사랑의 가래떡 나누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떡을 포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혈액 수급 비상...O형 3일 이상 못버터

노화 촉진·성장 저해 등 괴담에 헌혈 갈수록 줄어
올 1월 전년비 13% ↓...광주·전남 보유량 ‘미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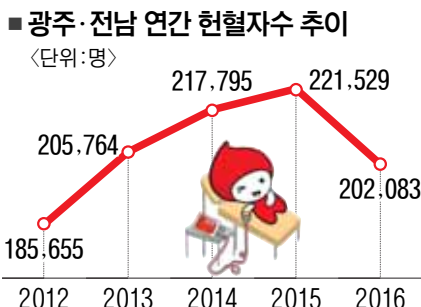
갈수록 헌혈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겨울방학과 명절을 맞아 헌혈인구가 급감하면서 혈액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헌혈을 하면 빨리 늙는다’ 등의 괴담이 SNS상에서 퍼지고,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 이후 1개월 동안은 헌혈을 금지하는 것도 혈액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23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전남지역 헌혈자 수는 1월 22일 기준 5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헌혈자 615명에 비해 13%(81명)가 줄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전남지역 헌혈자 수도 20만2083명으로, 전년인

2015년의 22만1529명 보다 8.8%가 감소했다.

혈액공급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광주·전남지역 혈액 보유량도 적정 수준을 밑돌면서 응급 현장에서는 혈액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기준 광주·전남지역 일일혈액보유량은 4.5일분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적정혈액보유량인 5일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형별 보유량의 경우 O형 3.3일분, A형 4.4일분, B형 5.5일분, AB형 5.6일분으로 집계돼 현재로선 O형과 A형의 혈액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혈액 보유량 역시



3.5일분에 그쳤다. 이 가운데 O형은 2.7일분, A형 2.7일분, B형 5.5일분, AB형 3.0일분씩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돼 전체적으로는 O형, A형, AB형의 혈액량이 적정량보다 훨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학생들의 방학과 설 명절이 겹쳐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혈을 하면 노화가 빨라지고, 키

가 자라지 않는 등 건강에 좋지 않다’, ‘헌혈을 하면 질병에 쉽게 걸리고 혈관이 수축하는가 하면 빈혈에 걸릴 수 있다’ 등의 헛소문이 퍼져 헌혈을 기피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헌혈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로 풀이됐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 후 1개월 동안 헌혈을 금지하고 있고, 말라리아위험지역을 여행한 경우에는 헌혈문진기준에 따라 1년~3년까지 헌혈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에 더욱 헌혈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명절기간 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수술들이 명절이 지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혈액부족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기관 및 일반 사업체의 헌혈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설 연휴 도로 정체 27일 오전 ‘최고’

우회도로 이용시 수신통 단축

올해 설 연휴에는 명절 전날이자 연휴 첫날 27일 오전에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일 이날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서평택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가 우회도로(양천IC~안중사거리)를 이용하면 시간을 약 30분 단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설 연휴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우회하는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7일 서

해안고속도로 매송~서평택 구간을 통과하려면 총 3시간 16분이 걸리지만, 양천IC에서 안중사거리로 국도를 우회하면 30분 짧은 2시간 46분이 소요된다.

26일에는 같은 구간을 우회도로로 통행(1시간 13분)할 경우 고속도로로 이동할 때(1시간 41분)보다 소요 시간을 28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에 고속도로 73개소에서 우회도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도 14개소에서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혼잡 상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상무금요시장 ‘설맞이’ 내일 임시 개장

광주시 서구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5일 상무금요시장을 임시 개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서구는 상무금요시장이 상무시민공원으로 이전한 후 처음 맞이하는 설을 앞두고 과일, 나물, 채소를 비롯한 제수용품과 반찬 등을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요일에만 좌판을 펴는 상인들도 명절 대목을 맞아 마음껏 장사를 하라는 배려도 담겼다.

남구도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3일부

터 24일까지 이틀간 구정 로비에서 ‘설 명절 사회적 경제 장터’를 열고 있다.

장터에는 남구에서 활동 중인 아낙네 녹색푸드, 트레칸, 남구지역자활센터, 오색빛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장터에 나온 물품은 김치와 반찬, 장류, 원두커피 등 먹을거리부터 공예품, 천연삼파, 비누 등 선물용품 등이다. 문의 광주서구청 건설과 360-7560, 남구청 사회적경제팀 607-2731.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7
해질녘 17:52
출몰 04:14
몰림 14:47

매서운 동장군

대체로 맑겠고 곳에 따라 눈이 오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5/3	보성	맑음	-7/3
목포	맑음	-4/3	순천	맑음	-5/4
여수	맑음	-4/4	영광	눈온뒤 맑음	-6/2
나주	맑음	-6/3	진도	맑음	0/4
완도	맑음	-3/4	전주	맑음	-8/2
구례	맑음	-7/2	군산	흐린뒤 맑음	-7/2
강진	맑음	-5/3	남원	맑음	-12/4
해남	맑음	-4/3	축산도	눈온뒤 맑음	-1/2
장성	맑음	-7/2			



◇바다 날씨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동부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생활지수

매우높음	매우높음
높음	높음
보통	보통
낮음	낮음
매우낮음	매우낮음

목포	간조	만조
	04:44	12:00
	17:47	23:45
여수	간조	만조
	00:22	07:24
	13:38	19:04

◇주간 날씨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6/5	-5/8	-1/6	-4/6	-1/7	0/5	-1/7

광주교육청 국민체조 중단한다

“권위시대 잔재” 부정 여론

광주시교육청이 근무시간 중 실시해 온 ‘국민체조’를 중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전 직원들이 매일 오전 시간 참여했던 국민체조를 중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직원들은 2009년 안순일 전 교육감 때부터 오전 10시30분부터 5분여간 ‘국민체조, 시·작’이라는 구령과 음악에 맞춰 몸 동작을 따라하거나 각자 스트레칭을 해왔다.

국민체조는 1977년, 정부가 전국에 보급한 맨손체조다. 음악과 구령에 맞춘 12개 동작으로 이뤄져 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초·중·고교 아침조례

때 전교생이 다 나와 국민체조를 했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대부분 학교에서 국민체조를 하는 풍경은 사라졌다.

광주교육청은 그러나 동일한 시간대, 통일된 체조를 요구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 자연스레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이라는 긍정적 시각을 보이며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에도 국민체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교육청은 최근 새마을기 철거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편함 등 부정적 여론이 잇따르자 국민체조를 중단하는 한편, 자유스럽게 긴장을 풀거나 휴식을 취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초·중·고 학업 중단 1년새 792명 줄어

광주·전남 지난해 2138명

지난해 광주·전남 초·중·고등학생 2138명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2016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초·중·고교 학업 중단 학생은 1196명(초등 302·중등 195·고등 699명)으로 조

사됐다. 전남에서는 942명의 초·중·고교 학생(0.44%)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질병, 해외출국 등을 제외한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327명으로 전년도(946명)에 견줘 크게 감소했다. 전남에서도 789명으로 전년도(962명)보다 줄어 들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후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상담문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분양모집중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